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담임목사/장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만족도 높아!

거버넌스란 다양한 정의가 가능한데 이번 넘버즈에서 다루는 '교회 거버넌스'는 교회를 운영하는 체계 전반을 의미한다. 가령 교회 내 어떤 목표가 있다면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지시, 관리, 의사결정 등)와 구조가 곧 교회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작년 9월 한국교회탐구센터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를 대상으로 '교회 거버넌스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넘버즈 282호>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운영 실태와 과제, 즉 구성 방식, 결정 과정, 참여 구조, 개선 방향 등을 분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교회 성도 수가 증가하고 있는 교회일수록 목회자와 장로들의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한 거버넌스가 교회 성장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거버넌스 조사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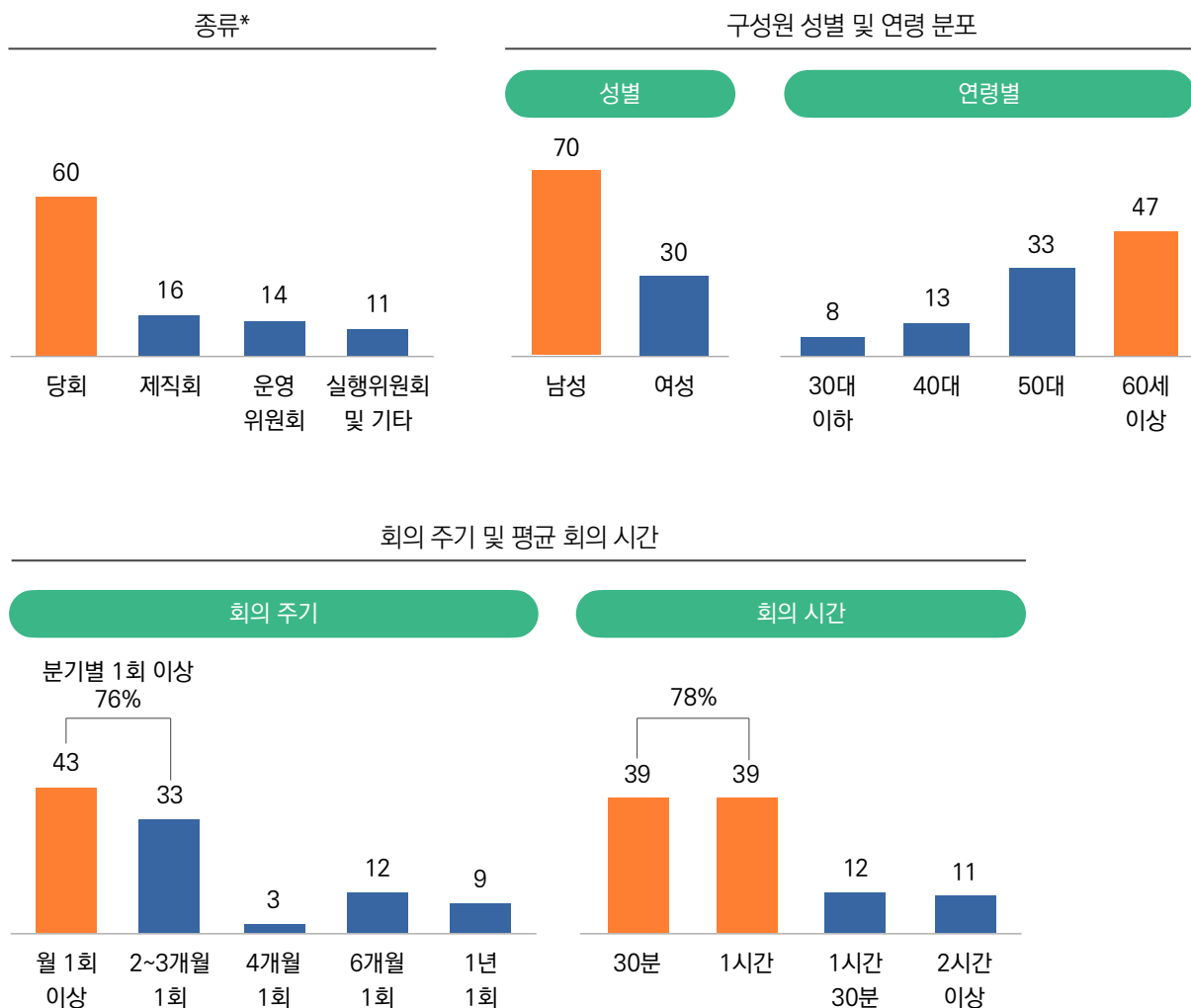
구 분	담임목사	시무장로
조사 대상	교회 담임목사	교회 시무장로
조사 방법	모바일 조사	모바일 조사
표본 규모	총 500명 (유효 표본)	총 300명 (유효 표본)
표본추출방법	편의추출(Convenience Sampling)	스노우볼(Snowball) 샘플링
자료 처리	교회 규모를 고려한 가중치 부여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4년 7월 26일 ~ 8월 23일(총 29일)	
조사 주체	한국교회탐구센터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운영 실태] 최고 의사결정기구, 60세 이상 남성층에 집중!

- 교회내 최고 의사결정기구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본다. 먼저 최고 의사결정기구 종류는 '당회'가 60%로 가장 많았고, '제직회' 16%, '운영위원회' 14% 등의 순이었다.
-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참석률은 92%로 매우 높았으며, 성별 분포는 '남성'이 70%로 '여성' 30%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 비율은 '60세 이상'이 47%, '50대' 33%로 '50대 이상'이 대부분(80%)이었다.
- 최고 의사결정기구 회의 주기는 '월 1회 이상'이 4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3개월 1회' 33%로 '분기별 1회 이상' 진행하는 교회가 4곳 중 3곳(76%)이었다.
- 평균 회의 시간은 '30분'과 '1시간'이 각각 39%로 가장 많아 대부분(78%)의 교회가 회의 시간을 1시간을 넘기지 않고 있었다.

[그림] 최고 의사결정기구 운영 실태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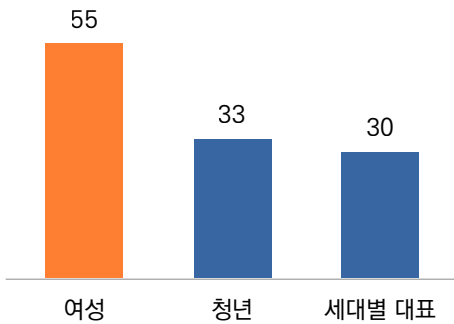
*당회(감리교회기획위원회 포함), 제직회(감리교 당회 포함)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최고의사결정기구 내 여성/청년/세대별 대표 참여율, 교회규모 작을수록 높아져

- 최고의사결정기구 내 여성/청년/세대별 대표의 참여율을 보면 ‘여성’이 55%, ‘청년’과 ‘세대별 대표’는 각각 33%, 30%로 30%대에 그쳤다.
- 교회규모별로 보면 교회규모가 작을수록 여성/청년/세대별 대표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주목된다.

[그림] 최고의사결정기구 내 여성/청년/세대별 대표 참여율 (투표권 가진 정규 구성원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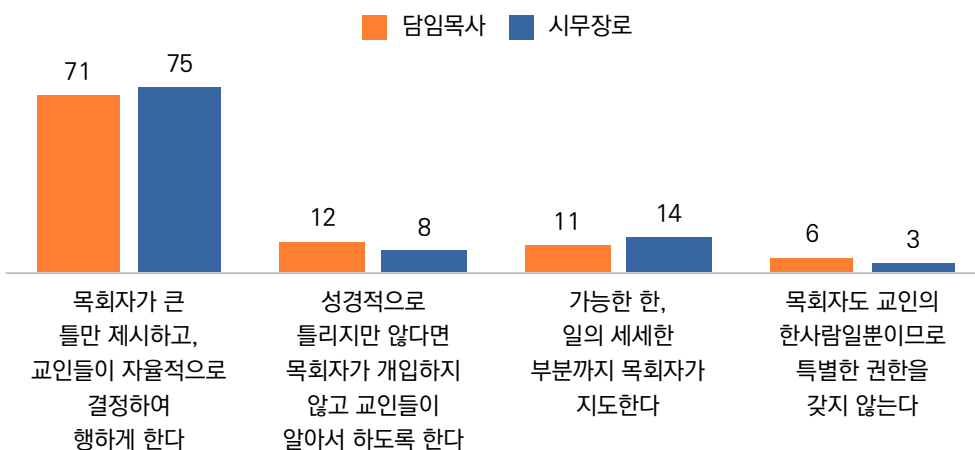
[표] ‘교회규모별’ 최고의사결정기구 내 여성/청년/세대별 대표 참여율 (투표권 가진 정규 구성원 비율, %)

교회규모별	여성	청년	세대별 대표
29명 이하	71 ↑	45 ↑	45 ↑
30~49명	61	37	31
50~99명	47	26	21
100~499명	36	20	16
500명 이상	29	17	12

바람직한 목회자의 역할, ‘큰 틀만 제시하는 자율형 리더’!

- 교회 운영 시 바람직한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 묻은 결과, 담임목사(71%)와 시무장로(75%) 모두 ‘목회자가 큰 틀만 제시하고, 교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행하게 한다’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가능한 한 일의 세세한 부분까지 목회자가 지도하다’는 통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은 두 집단 모두 10%대의 낮은 응답률을 보여, 자율성과 참여를 중시하는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림] 교회 운영 시 바람직한 목회자의 역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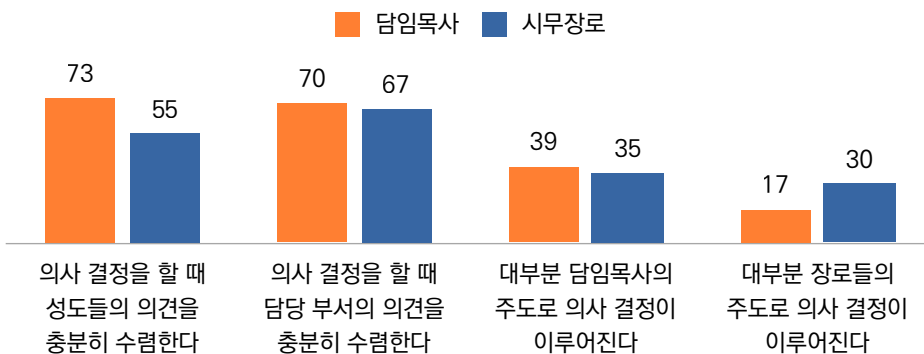


02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 과정: 투명성과 참여성] 10개 교회 중 4곳, 담임목사 주도로 의사결정!

-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항목별로 질문한 결과, '의사결정 시 담당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응답에 대해 담임목사 70%, 시무장로 67%가 동의해, 교회 3곳 중 2곳 이상은 내부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결정을 할 때 성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에도 담임목사 73%, 장로 55%가 동의해 절반 이상 교회가 의사결정 시 성도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을 알 수 있다. 다만 해당 항목에서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간 동의율 격차가 18%p로, 두 집단 간 인식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 한편 '대부분 담임목사 주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응답은 교회 10곳 중 4곳 정도가 해당됐다. 반면 '대부분 장로들의 주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에 대한 동의율은 담임목사 17%, 시무장로 30%로 담임목사보다 시무장로가 장로 주도의 의사결정에 대해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 과정 (각 항목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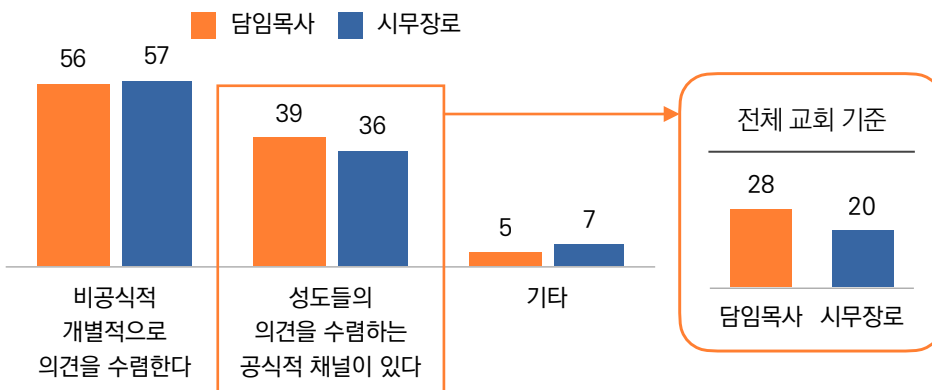


*5점 척도

성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식적 채널 있는 교회, 10개 교회 중 2-3개!

- 앞서 '의사결정 시 성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응답한 교회를 대상으로, 성도들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는지 묻은 결과, 담임목사(56%)와 장로(57%) 모두 절반 이상이 '비공식적 개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응답했다.
- 반면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채널*이 있다'는 응답은 담임목사 39%, 시무장로 36%로 40% 미만에 그쳐 공식적 소통 구조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교회 기준으로 환산하면 목회자 28%, 장로 20%로 나타났는데, 10개 교회 중 2-3개 교회만이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 채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성도들의 의견 수렴 방법 (의사결정 시 성도들의 의견 수렴하는 교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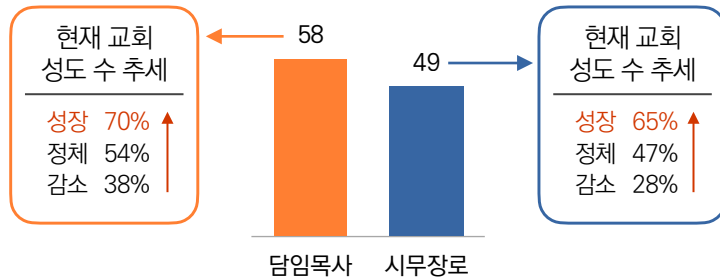


*공식적 채널 : 정해진 방법과 절차를 따라 이루어지는 소통 경로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담임목사/장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만족도 높아!

- 최고 의사결정기구 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담임목사 58%, 시무장로 49%로, 시무장로의 만족도가 담임목사보다 9%p 낮았다.
- 최고 의사결정기구 만족도는 현재 교회 성도 수 변화 추세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목회자/장로 만족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인 점이 눈에 띈다.

[그림] 최고 의사결정기구 만족도 ('매우+약간 만족한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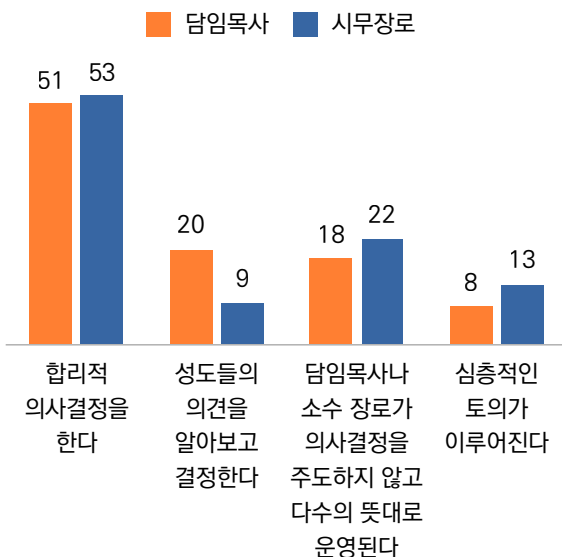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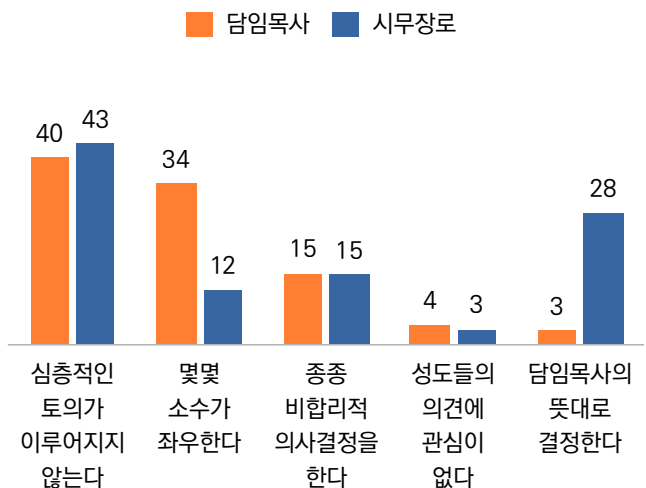
만족 이유: 합리적 의사 결정, 불만족: 심층적 토의 이뤄지지 않음

- 최고 의사결정기구 활동 전반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담임목사(51%)와 시무장로(53%) 모두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한다'를 가장 높게 꼽았다.
- 한편 불만족 이유로는 '심층적인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를 담임목사와 장로 집단 모두 가장 많이 응답했다. 주목할 점은 2순위 응답인데 시무장로는 '담임목사의 뜻대로 결정한다'를, 담임목사는 '몇몇 소수가 좌우한다'를 꼽아서 간 불신과 독단적 결정에 대한 불만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최고 의사결정기구 만족 이유*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만족하는 자, %)



[그림] 최고 의사결정기구 불만족 이유*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불만족하는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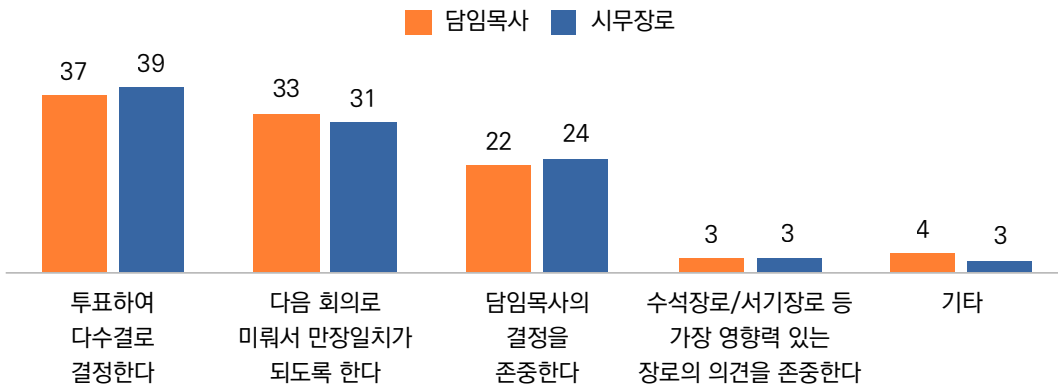


*기타 응답은 제외

의견이 엇갈릴 경우, 교회 3곳 중 1곳은 ‘만장일치 될 때까지’!

- 최고 의사결정기구 회의에서 의견이 엇갈릴 경우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묻은 결과, ‘투표하여 다수결로 결정’이 담임 목사 37%, 시무장로 3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음 회의로 미뤄서 만장일치가 되도록 함’이 교회 3곳 중 1곳꼴(담임 목사 33%, 장로 31%)이었다.
- 반면 ‘담임목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은 20%대로 교회 5곳 중 1곳 정도였다.

[그림] 최고 의사결정기구 회의에서 의견이 엇갈릴 경우 결정 방법 (%)



거버넌스 관련 성장하는 교회 특징,

- ① 의사결정기구 내 청년 참여 ↑
- ② 의사결정 시 담당 부서 의견 충분히 수렴
- ③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주기적 피드백 진행
- ④ 의사결정 시 사회적 영향 고려

- 이번 교회 거버넌스 관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장하는 교회와 감소하는 특징을 비교해 본다.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최고 의사결정기구 내 청년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의사결정 시 담당 부서의 의견 수렴률’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의사 결정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비율’과 ‘의사결정 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주목된다. 반면 감소하는 교회는 이 모든 항목에서 낮은 특징을 보였다.

[표] 거버넌스 관련 성장하는 교회 vs 감소하는 교회 특징 비교 (담임목사 대상)

	교회 규모별 ‘그렇다’ 비율		
	성장	정체	감소
최고 의사결정기구 내 청년(투표권 있음)의 참여율	37%	30%	28%
의사결정 시 ‘담당 부서의 의견 충분히 수렴한다’	78%	68%	49%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결정 사항 진행 과정과 결정에 대한 ‘주기적 평가한다’	62%	47%	37%
의사결정 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 ‘고려한다’	67%	59%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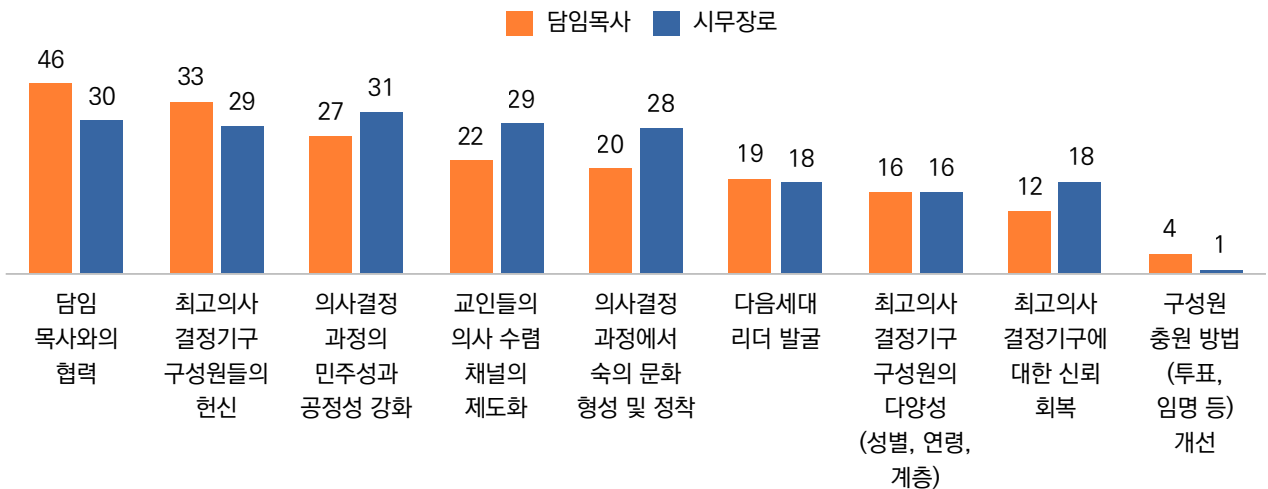
03

[교회 거버넌스 제도 개선 방향]

의사결정기구 과제, 담임목사: '협력', 장로: '민주성과 공정성'!

- 교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담임목사는 '담임목사와의 협력'(46%)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들의 헌신' 33%,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공정성 강화' 2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 반면 시무장로는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과 공정성 강화' 31%, '담임목사와의 협력' 30%, '교인들의 의사 수렴 채널의 제도화' 29%,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들의 헌신' 29%, '의사결정과정에서 속의 문화 형성 및 정착' 28% 등 다양한 과제를 고루 응답해, 의사결정기구 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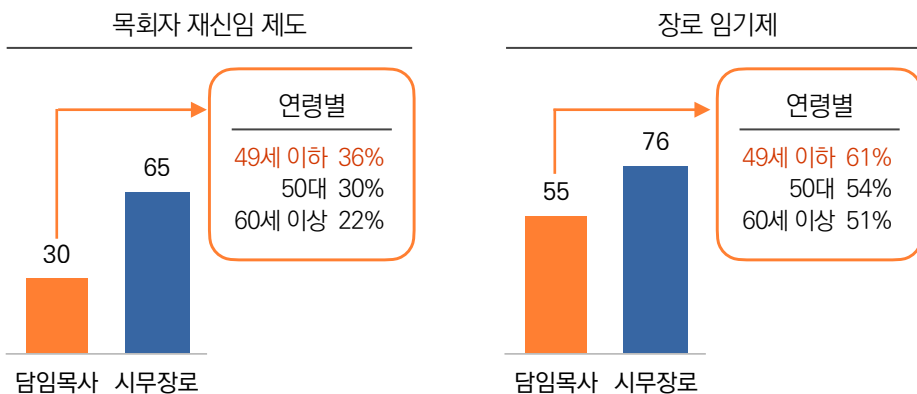
[그림] 교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가장 중요한 과제 (1+2순위, %)



장로 임기제, 목회자/장로 모두 절반 이상 찬성률 보여!

- 목회자 재신임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담임목사와 시무장로에게 각각 물었다. 그 결과, 담임목사는 30%, 시무장로는 65%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장로 임기제에는 담임목사의 절반 이상(55%), 시무장로는 이보다 더 높은 7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로 임기제와 관련 두 그룹 모두 절반 이상의 비교적 높은 찬성률을 보였는데 담임목사보다 시무장로 본인들의 찬성 의견이 높은 점이 주목된다.
- 담임목사의 경우 나이가 적을수록, 목회자 재신임 제도와 장로 임기제에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목회자 재신임 제도와 장로 임기제에 대한 찬성 의견 ('매우+약간 찬성한다' 비율*, %)



*5점 척도

장로 임기제, 찬성은 ‘권력 집중 방지’, 반대는 ‘장로 직분은 항존직’!

- 장로 임기제 찬반 이유를 각각 살펴본다. 찬성 이유로는 ‘특정인들이 오랫동안 교회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53%)가 가장 많이 꼽혔고, 반대 이유로는 ‘장로 직분은 성경 혹은 총회 규정에 항존직이므로’(44%)가 가장 높게 응답됐다. 이와 같은 응답은 시무장로들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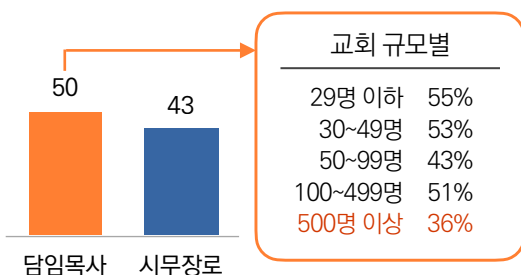
[표] 장로 임기제 찬반 이유 (담임목사 기준, 상위 3위)

	찬성 이유	반대 이유
1위	특정인들이 오랫동안 교회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3%)	장로 직분은 성경 혹은 총회 규정에 항존직이므로 (44%)
2위	시대의 변화에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19%)	자격과 역량이 충분한 장로가 중도에 그만두는 것 방지하기 위해 (28%)
3위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15%)	잘못된 선거가 성도들의 상처와 갈등의 원인이 되므로 (21%)

담임목사 2명 중 1명, 평신도 위원회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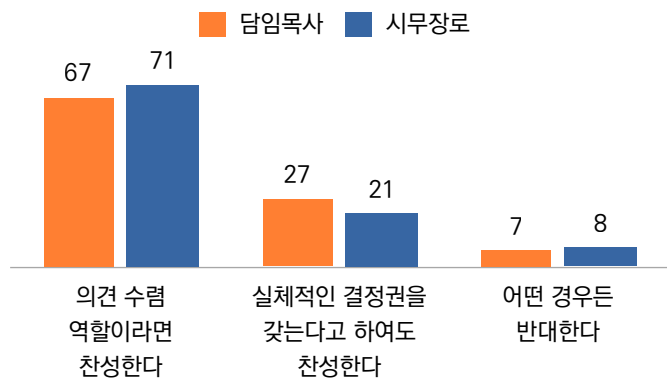
- 집사, 권사, 장로와 같은 직분이 없이 임기제로 운영되는 평신도 위원회**를 두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평신도 위원회 설립을 찬성하는 비율은 담임목사 50%, 시무장로 43%로 나타났다. 즉 장로가 목사보다 설립에 찬성하는 비율은 낮고, 반대하는 비율(담임목사 22%, 시무장로 36%)은 높아 주목된다.
- 평신도 위원회의 역할 정도에 따른 찬성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의견 수렴 역할이라면 찬성한다’를 꼽은 비율이 담임목사 67%, 시무장로 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실체적인 결정권을 갖는다고 하여도 찬성’, ‘어떤 경우든 반대’ 순이었다.
-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3명 중 2명 이상은 ‘실체적인 결정권’보다는 의견 수렴 정도까지를 평신도 위원회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 교회규모별로 보면 담임목사의 경우 ‘500명 이상’ 교회에서 평신도 위원회 설립에 찬성하는 비율이 36%로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유일하게 반대 의견(43%)이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평신도 위원회 설립 의견
(‘매우+약간 찬성한다’ 비율*, %)



*5점 척도

[그림] 평신도 위원회의 역할 (%)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등으로 몇몇 교회에서 운영중임

이번호 요약

1. 성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식적 채널 있는 교회, 10개 교회 중 2~3개!

- 의사결정 시 성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교회(전체 교회 기준)는 28%, 장로 20%로, 10개 교회 중 2~3개 교회만이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 채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견이 엇갈릴 경우, 교회 3곳 중 1곳은 '만장일치 될 때까지'!

- 의사결정 회의에서 의견이 엇갈릴 경우 결정 방법으로는 '투표하여 다수결로 결정'이 담임목사 37%, 시무장으로 39%로 가장 많았고, '다음 회의로 미뤄 만장일치가 되도록 함'이 교회 3곳 중 1곳으로 조사됐다.

3.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담임목사/장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만족도 높아!

- 최고 의사결정기구 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담임목사 58%, 시무장으로 49%였는데, 특이점은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목회자/장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 점이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영상] 거버넌스 건강한 교회의 구조를 탐구하다! (정재영 교수, 한국교회탐구센터)

관련 성경 구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1:10)

목회 적용점

교회 거버넌스는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이번 '교회 거버넌스 조사' 결과, 교회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이 고연령층과 남성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교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투표권을 가진 여성의 비율은 55%, 청년과 세대별 대표는 각각 30%대에 그쳤다.

이처럼 일부 소수 의견만 수렴하기 쉬운 구조는 교회의 민주성과 포용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민주적인 교회 운영을 위해 의사결정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특히 청년과 여성 등 의사결정에서 소외된 집단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당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의 N교회는 2014년부터 청년 교구, 젊은부부 교구 대표가 참여하는 확대 당회 제도를 통해 교회 운영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높였다.

또한 성도들의 의견을 비공식적 경로로만 수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해 성도들의 참여와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의견 수렴에 의존할 경우 성도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어렵고, 목사나 장로에 의해 의견이 사전 배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담임목사와 장로의 당회(최고 의사결정기구) 만족도가 높았는데, 만족하는 이유로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가장 높았고, 불만족 이유로는 심층적 토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높았다. 당회원 사이에 큰 갈등 없이 서로 협력하고 한 방향으로 갈 때 그 교회가 성장한다는 데이터여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회가 어려운 이때, 수직적이고 전통적인 교회 문화에서 이번 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심층적인 토의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교회가 점점 많아지길 기대한다.